

노동시장 동향

경제일반

- ◆ 생산·소비는 증가, 투자는 감소
- 2005년 8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5.5%, 5.8% 증가하였고, 도·소매판매는 4.9% 증가하였으나, 투자는 0.9% 감소하였음.
 - 8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21.8%), 영상음향통신(14.7%)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5% 증가, 전월에 비해서는 1.6% 감소하였음. 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및 정밀기기 등에 대한 투자감소로 0.9% 감소(표 1 참조).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하였음(전월 대비 4.3% 증가). 도·소매업을 비롯하여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등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됨(그림 2 참조).
 - 도·소매판매는 도매업(4.50%), 소매업(3.6%),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소매(9.2%) 모두 증가하여 4.9% 증가하였음.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향후의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2.6%로 전월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하였음(그림 3 참조).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8월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8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1.2	6.1	3.1	3.0	7.7	11.3	12.7	11.4	10.9	6.7	3.8	4.0	5.5	
	제조업 생산	11.2	5.7	2.9	3.0	8.0	11.9	13.2	11.6	11.0	7.0	3.5	3.9	5.6	
	출 하	10.8	4.4	2.8	2.5	6.7	10.0	10.8	10.1	9.9	5.8	3.5	3.5	5.8	
	수 출	12.2	7.3	9.9	11.2	17.6	21.9	23.4	20.4	20.1	15.0	10.9	6.8	6.2	
	내 수	10.0	2.8	-0.7	-2.1	0.9	3.7	3.8	4.1	4.0	0.3	-1.2	1.4	7.7	
	서비스업 생산	8.0	1.9	0.9	0.5	0.6	2.1	0.9	-0.5	-0.7	-0.2	0.7	2.4	4.5	
소비	도소매 판매	7.1	1.7	-1.5	-2.3	-2.0	-0.2	-0.6	-1.1	-2.2	-1.4	-1.0	2.6	4.9	
투자	설비투자	13.8	2.6	0.2	-6.4	-5.3	-2.0	3.2	3.8	6.0	0.1	4.0	1.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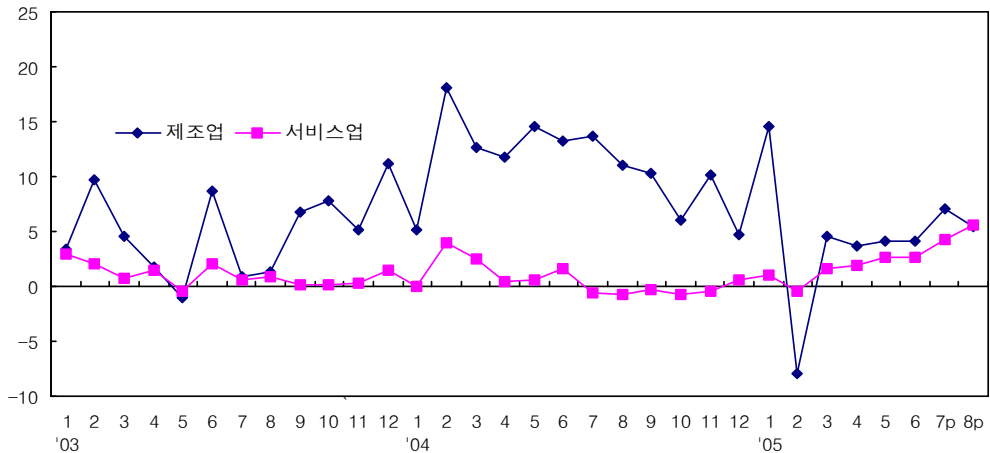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 (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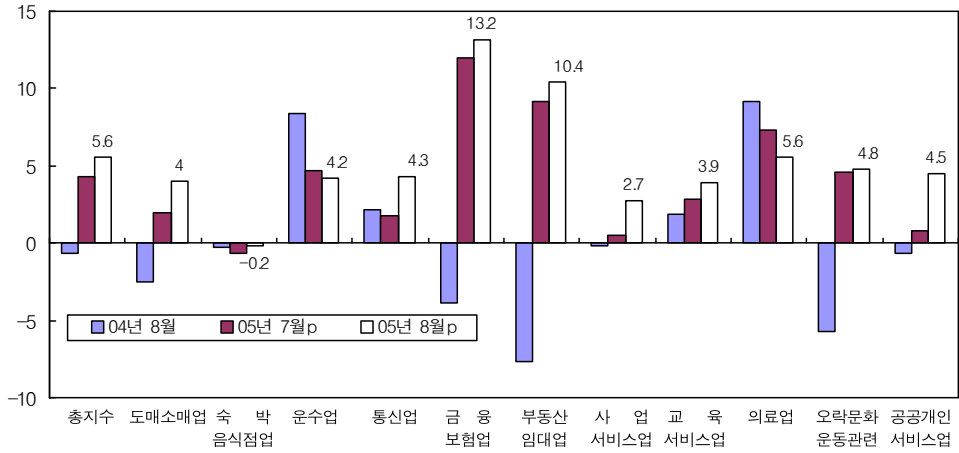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05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05. 9.

——, 『2005년 8월 서비스업활동동향』, 2005. 9.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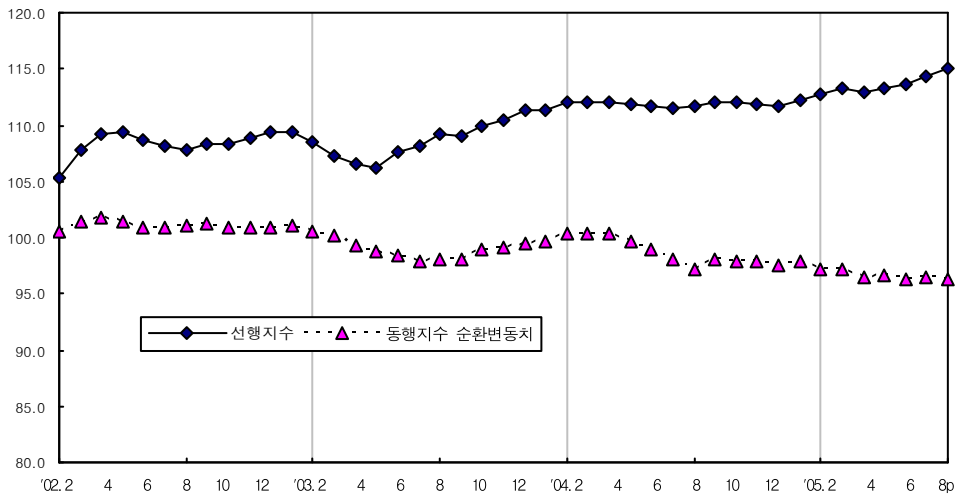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단위 : 200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동일 고용률 하락

- 2005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3,893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11천명(1.8%) 증가했고 9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918천명으로 전월동월대비 317천명(1.3%)이 증가
 - 3/4분기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3,941천명으로 208천명(1.5%)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9,952천명으로 203천명(2.1%) 증가
- 2005년 3/4분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기대비 동일하나 9월 기준으로는 0.2%포인트 하락한 62.2%를 기록
 - 3/4분기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74.6%로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하락하였고, 여성이 50.4%로 0.2%포인트 상승
- 2005년 3/4분기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하락하였고 9월 기준으로는 0.4%포인트 하락하여 59.9%를 기록
 - 2004년 1/4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지속되는 반면, 남성은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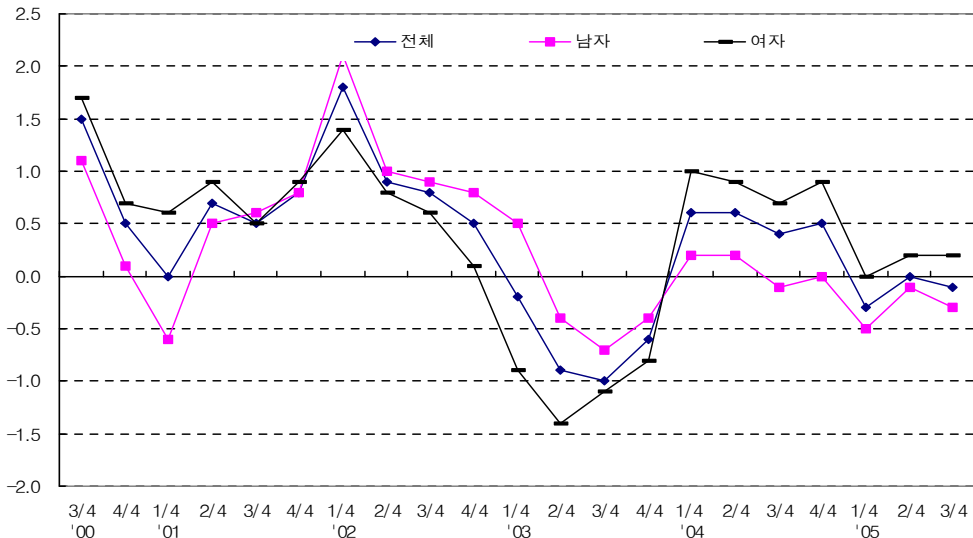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경제활동인구	23,035 (2.5)	23,576 (2.1)	23,482 (1.7)	23,601 (2.3)	23,575 (1.8)	23,221 (0.8)	24,004 (1.8)	23,893 (1.8)	23,689 (2.0)	23,918 (1.3)
참가율	61.3	62.6	62.2	62.4	62.3	61.1	62.7	62.2	61.6	62.2
취업자	22,104 (2.2)	22,744 (2.0)	22,647 (1.6)	22,809 (2.3)	22,733 (1.8)	22,247 (0.6)	23,126 (1.7)	23,026 (1.7)	22,847 (2.1)	23,048 (1.0)
고용률	58.8	60.4	60.0	60.3	60.1	58.5	60.4	59.9	59.5	59.9
실업자	931	831	835	792	842	975	878	867	843	870
실업률	4.0	3.3	3.6	3.4	3.6	4.2	3.7	3.6	3.6	3.6
비경제활동인구	14,542 (-1.2)	14,097 (-0.8)	14,289 (0.0)	14,197 (-1.1)	14,273 (-0.3)	14,789 (1.7)	14,271 (1.2)	14,533 (1.7)	14,739 (1.4)	14,530 (2.3)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5년 9월 고용동향』, 2005. 10.

[그림 4] 고용률 변화

(단위: %포인트,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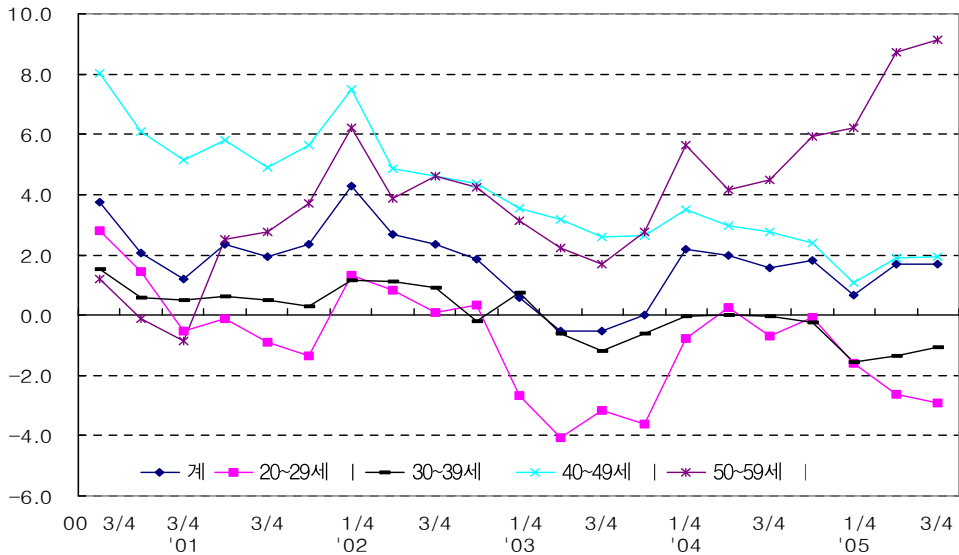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2004년 3/4분기 이후 감소세 지속(그림 4 참조)

- 2005년 3/4분기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379천명(1.7%)이 증가하여 23,026천명이고 남성취업자는 13,389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5천명(1.4%), 여성취업자는 9,637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4천명(2.1%)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39세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반면, 50~59세의 취업자 증가세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증가된 취업자가 40~50대에서 기인함을 의미함(그림 5 참조).
- 2005년 3/4분기 실업자는 867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2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6%로 전년동기대비 동일하나, 9월 대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증가하여 3.6%를 기록
 - 3/4분기 남성실업자는 552천명으로 22천명이 증가하였고, 여성실업자는 315천명으로 10천명이 증가함.
 - 실업률은 남자와 여자 모두 상승(남성 4.0%(0.1%포인트), 여성 3.2%(0.1%포인트))
- 2005년 3/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14,533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44천명(1.7%) 증가하였으며, 9월 기준으로는 14,53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3천명(2.3%) 증가하여 2005년 1월 이후 증가세가 꾸준함.

[그림 5] 연령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9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는 1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명 증가로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어감.

※ 구직단념자 추이: 92천명(2004. 9) → 103천명(2005. 4) → 114천명(2005. 6) → 141천명(2005. 7) → 148천명(2005. 8) → 123천명(2005. 9)

◆ 제조업 취업자 감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

- 2005년 3/4분기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57천명, 5.4%), 건설업(46천명, 2.6%), 전기·운수·통신·금융업(55천명, 2.5%), 농림어업(32천명, 1.7%)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78천명, -1.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천명, -0.6%) 등에서는 감소함.

- 3/4분기 전산업 중 상대적 비중이 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또한 건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세를 보임(그림 6 참조).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취업자는 2004년 3/4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9월 중 건설업에서 5개월 만에 취업자가 감소(-14천명, -0.7%)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산업	22,104 (2.2)	22,744 (2.0)	22,647 (1.6)	22,809 (2.3)	22,733 (1.8)	22,247 (0.6)	23,126 (1.7)	23,026 (1.7)	22,847 (2.1)	23,048 (1.0)
농림어업	1,609 (-5.3)	1,967 (-7.5)	1,933 (-7.5)	1,942 (-7.1)	1,789 (-4.9)	1,525 (-5.2)	2,018 (2.5)	1,965 (1.7)	1,951 (0.9)	1,940 (-0.1)
제조업	4,278 (2.6)	4,308 (1.7)	4,278 (2.7)	4,297 (3.2)	4,296 (1.2)	4,260 (-0.4)	4,257 (-1.2)	4,200 (-1.8)	4,167 (-1.4)	4,201 (-2.2)
건설업	1,762 (1.6)	1,864 (0.6)	1,790 (-1.7)	1,832 (0.6)	1,864 (0.6)	1,692 (-4.0)	1,897 (1.8)	1,836 (2.6)	1,820 (3.9)	1,818 (-0.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912 (-0.1)	5,866 (0.5)	5,819 (0.2)	5,833 (1.2)	5,853 (0.0)	5,835 (-1.3)	5,796 (-1.2)	5,783 (-0.6)	5,734 (-0.1)	5,774 (-1.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6,362 (7.3)	6,542 (8.0)	6,617 (5.8)	6,686 (5.9)	6,711 (6.1)	6,714 (5.5)	6,907 (5.6)	6,974 (5.4)	6,911 (5.7)	7,045 (5.4)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163 (-0.2)	2,182 (0.2)	2,197 (2.6)	2,206 (3.2)	2,205 (2.4)	2,202 (1.8)	2,233 (2.3)	2,252 (2.5)	2,249 (3.0)	2,25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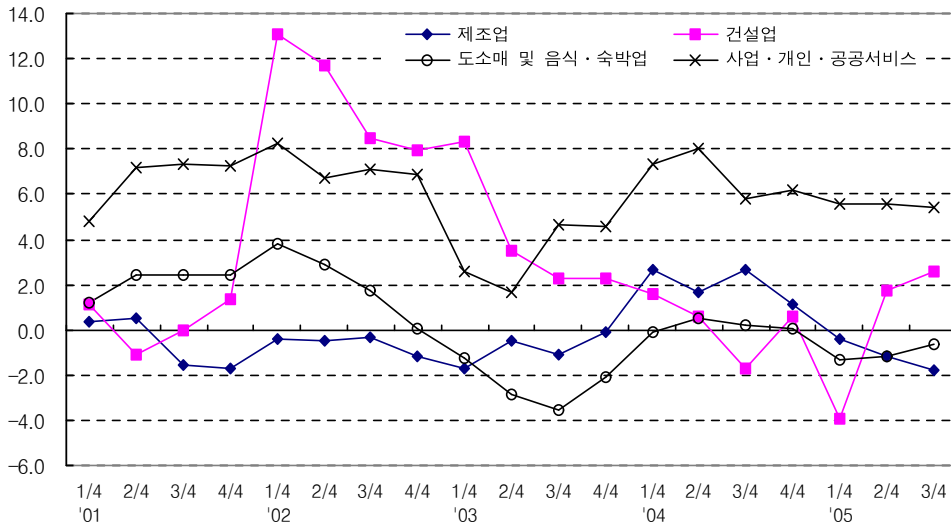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5년 9월 고용동향』, 2005. 10.

〔그림 6〕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지속적인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지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의 세부 사항을 보면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업 그리고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등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짐.

◆ 상용·일용직,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

- 2005년 3/4분기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843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4천명(1.0%)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5,183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05천명(2.1%) 증가
 - 임금근로자가 2003년 3/4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용근로자의 증가에서 기인함.
 - 2004년 1/4분기 이후 임시근로자의 감소세와 일용근로자의 증가추세가 지속됨(그림 7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체	22,104 (2.2)	22,744 (2.0)	22,647 (1.6)	22,809 (2.3)	22,733 (1.8)	22,247 (0.6)	23,126 (1.7)	23,026 (1.7)	22,847 (2.1)	23,048 (1.0)
비임금근로자	7,490 (0.3)	7,762 (-0.4)	7,769 (-2.1)	7,822 (-2.0)	7,631 (-1.5)	7,391 (-1.3)	7,772 (0.1)	7,843 (1.0)	7,879 (1.0)	7,840 (0.2)
자영업주	6,001 (2.3)	6,136 (1.9)	6,177 (0.1)	6,227 (0.1)	6,126 (0.2)	6,022 (0.4)	6,210 (1.2)	6,272 (1.5)	6,302 (1.8)	6,269 (0.7)
무급가족 종사자	1,489 (-7.0)	1,626 (-8.2)	1,593 (-9.9)	1,595 (-9.4)	1,505 (-8.0)	1,368 (-8.1)	1,562 (-3.9)	1,571 (-1.3)	1,577 (-1.8)	1,571 (-1.5)
임금근로자	14,614 (3.2)	14,983 (3.3)	14,878 (3.6)	14,987 (4.7)	15,102 (3.6)	14,856 (1.7)	15,354 (2.5)	15,183 (2.1)	14,968 (2.6)	15,208 (1.5)
상용근로자	7,460 (4.0)	7,586 (4.6)	7,671 (5.5)	7,744 (5.6)	7,781 (5.4)	7,803 (4.9)	7,936 (4.6)	7,945 (3.6)	7,926 (2.9)	8,021 (3.6)
임시근로자	5,067 (3.3)	5,199 (2.3)	5,035 (0.9)	4,989 (0.9)	5,026 (-0.3)	4,968 (-2.0)	5,112 (-1.7)	5,022 (-0.3)	4,879 (1.4)	5,013 (0.5)
일용근로자	2,087 (0.0)	2,197 (0.9)	2,172 (3.5)	2,254 (10.2)	2,295 (6.5)	2,085 (-0.1)	2,306 (4.9)	2,216 (2.0)	2,164 (4.5)	2,175 (-3.5)
36시간 미만	2,587 (0.8)	2,509 (27.9)	2,687 (-10.0)	2,442 (13.6)	2,501 (5.5)	2,757 (6.7)	2,411 (-3.6)	3,138 (16.8)	3,846 (40.7)	2,930 (20.0)
36시간 이상	19,125 (0.8)	20,004 (-0.8)	19,563 (3.6)	20,121 (1.0)	20,000 (1.4)	18,783 (-1.8)	20,473 (2.3)	19,476 (-0.4)	18,330 (-4.0)	19,86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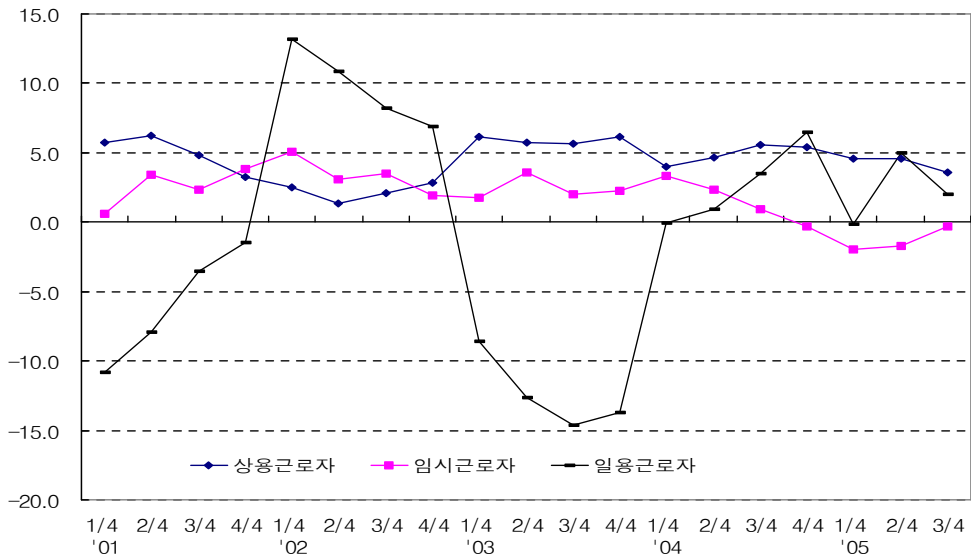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5년 9월 고용동향』, 2005. 10.

- 3/4분기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6,272(1.5%)천명으로 95천명이 증가했고, 무급가족종사자가 1,571(-1.3%)천명으로 22천명이 감소해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를 주도함.
 - 상용직 중심으로의 근로자 이동이나 임시근로자의 계속된 감소는 좋은 현상이나 일용근로자의 증가로 고용의 질 문제가 우려되며 감소된 임시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축적되는 현상은 경계해야 함.
- 2005년 3/4분기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1398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51천명(16.8%)이 대폭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476천명으로 87천명(-0.4%) 감소
- 9월 중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88천명(20.2%)이 증가한 2,930천명을 기록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56천명(-1.3%)이 감소
 - 2004년 4/4분기에 크게 줄어든 일자리가 약 38만개까지 증가한 것은 좋은 현상이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용직과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급격한 증가는 체감고용사정이 그리 좋지 않음을 보여줌.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전체 연령에서 실업률 소폭 상승, 고졸 실업률 상승

- 2005년 3/4분기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전연령층에서 소폭 상승함.
 - 9월 중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청년층(15~29세, 7.2%)과 40대(2.5%)에서 각각 0.2%포인트 증가하였고, 30대(3.8%)와 50대(2.8)에서는 각각 0.7%포인트가 증가하여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함.
 - 2005년 3/4분기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고졸에서 0.2%포인트 증가한 4.5%이고, 대졸 이상은 변화 없이 3.3%, 중졸 이하는 0.1%포인트 감소하여 2.5%를 기록하였으나 9월 중 실업률은 대졸 이상(3.4%, 0.4%포인트), 고졸(4.5%, 0.3%포인트), 중졸 이하(2.5%, 0.2%포인트)에서 모두 증가함.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체	931(4.0)	831(3.5)	835(3.6)	792(3.4)	842(3.6)	975(4.2)	878(3.7)	867(3.6)	843(3.6)	870(3.6)
15~29세	472(9.3)	402(8.1)	374(7.5)	346(7.0)	400(8.1)	448(9.0)	377(7.8)	368(7.6)	354(7.4)	336(7.2)
30~39세	193(3.0)	186(2.9)	204(3.2)	201(3.1)	201(3.2)	224(3.6)	200(3.2)	209(3.3)	206(3.3)	239(3.8)
40~49세	159(2.5)	138(2.2)	152(2.4)	145(2.3)	141(2.2)	182(2.9)	165(2.5)	161(2.5)	159(2.5)	160(2.5)
50~59세	79(2.4)	77(2.2)	78(2.3)	74(2.1)	78(2.2)	94(2.7)	94(2.5)	98(2.6)	97(2.6)	107(2.8)
60세 이상	28(1.4)	29(1.2)	27(1.2)	26(1.1)	23(1.0)	23(1.3)	42(1.6)	32(1.3)	28(1.1)	29(1.1)
중졸 이하	155(2.7)	141(2.3)	153(2.6)	142(2.3)	144(2.4)	169(3.1)	161(2.7)	148(2.5)	146(2.5)	148(2.5)
고졸	495(4.9)	423(4.2)	443(4.3)	427(4.2)	478(4.7)	528(5.2)	444(4.3)	466(4.5)	446(4.4)	460(4.5)
대졸 이상	280(3.9)	268(3.6)	239(3.3)	223(3.0)	220(3.0)	277(3.7)	273(3.5)	253(3.3)	251(3.3)	262(3.4)
신규실업자	86	52	32	25	40	60	41	32	26	23
전직실업자	845	779	803	767	803	915	837	835	817	847
1년 이상	158	141	129	118	144	175	179	166	141	183
1년 미만	687	638	674	649	659	740	658	669	675	664

주:()안의 수치는 실업률.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5년 9월 고용동향』, 200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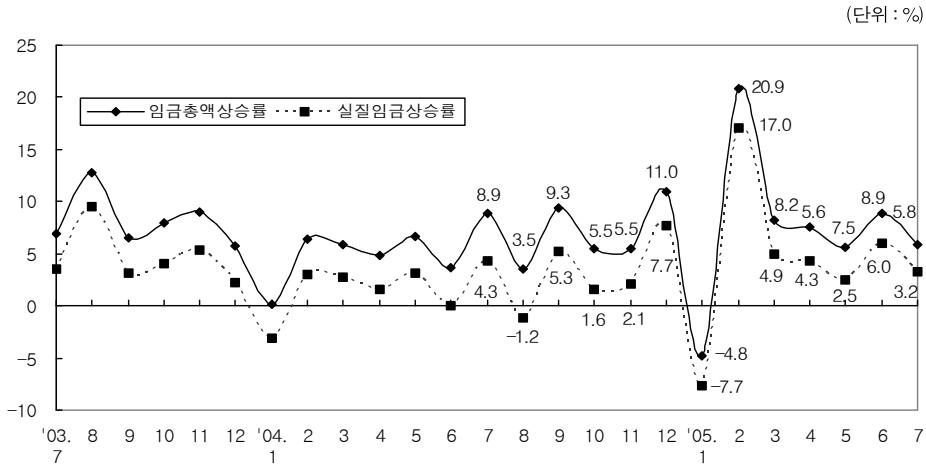
- 2005년 3/4분기 전체 실업자 867천명을 전직유무별로 보면 신규실업자(32천명)의 변화는 없었으나 전직실업자가 32천명 증가하여 835천명임.
 - 전직실업자 중 이직한지 1년이 안된 실업자는 669천명으로 15천명 증가하였고, 이직한지 1년 이상된 전직실업자는 166천명으로 37천명 증가
 - 9월 중 1년 미만 전직실업자는 664천명으로 15천명 증가했고, 1년 이상 전직실업

- 자는 183천명으로 65천명이 증가해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냄.
- 3/4분기 중 신규실업자(3.7%)와 전직실업자(96.3%)의 비중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져 최근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시사
 - ※ 전직실업자 비중: 93.6%(2003. 3/4) → 96.1%(2004. 3/4) → 96.3%(2005. 3/4)
 - 전직실업자 중 1년 이상 전직실업자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
 - ※ 1년 이상 전직실업자 비중: 12.8%(2003. 3/4) → 15.4%(2004. 3/4) → 19.1%(2005. 3/4)

임금 동향

- ◆ 2005년 7월 임금상승률, 전년보다 3.1%포인트 낮아
 - 2005년 7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387천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8% 상승
 - 이는 전년동기의 임금총액 상승률 8.9%보다 3.1%포인트 낮은 수치임.
 - 1~7월의 임금총액은 2,321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상승
 - 2005년 7월 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이는 정액급여 상승률은 전년과 비슷하고 초과급여 상승률은 전년보다 높은 반면 특별급여 상승률이 -0.6%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산업별로는 건설업 및 오락·문화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등에서 마이너스 임금상승률을 나타내었고,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 등이 주요 원인임.
 - 실질임금은 3.2% 상승
 - 2005년 7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3.2% 상승함.
 - 1~7월의 실질임금은 1월 실질임금이 7.7% 하락한 영향이 지속되어 임금총액 상승률보다는 낮은 4.1%의 상승률을 기록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원/월, 2000=100.0,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7월
							6월	7월		
임 금 총 액	2,255 (6.0)	2,185 (3.9)	2,115 (5.0)	2,324 (7.3)	2,399 (7.7)	2,348 (7.5)	2,272 (7.4)	2,446 (8.9)	2387 (5.8)	2,321 (7.2)
정 액 급 여	1,636 (6.8)	1,599 (7.0)	1,613 (6.6)	1,643 (6.9)	1,690 (6.7)	1,726 (8.0)	1,734 (7.6)	1,747 (7.5)	1757 (7.2)	1,734 (7.7)
초 과 급 여	137 (1.7)	132 (3.1)	138 (2.5)	137 (2.5)	143 (-1.0)	142 (7.8)	151 (8.9)	150 (10.0)	148 (11.6)	147 (8.8)
특 별 급 여	482 (4.6)	455 (-5.4)	364 (-0.5)	544 (9.8)	566 (13.3)	480 (5.7)	387 (6.2)	548 (12.9)	481 (0.6)	440 (4.8)
실 질 임 금 지 수	117.9 (2.3)	115.5 (0.6)	111.1 (1.6)	120.5 (2.9)	124.5 (4.1)	120.3 (4.2)	115.8 (4.3)	125.0 (6.0)	121.5 (3.2)	118.5 (4.1)
소 비 자 물 가 지 수	114.7 (3.6)	113.4 (3.3)	114.2 (3.3)	115.6 (4.3)	115.5 (3.4)	117.0 (3.2)	117.6 (3.0)	117.3 (2.7)	117.8 (2.5)	117.4 (3.0)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5년 9월, 협약임금 인상률 및 진도율은 전년보다 낮게 진행

○ 협약임금 인상률, 전년동기보다 0.6%포인트 낮게 나타남.

- 2005년 9월 30일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9%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5.5%보다 0.6%포인트 하락
- 이 중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9%로 전년동기의 5.6%보다 하락하였으나

- 공공부문은 4.2%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2.6%에 비해 크게 상승
- 전년보다 낮은 협약임금 인상률은 2005년 7월 이후 주 40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전년보다 낮게 타결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임금교섭은 전년보다 느리게 진행 중

- 2005년 9월 30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228개소 중 3,271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전년동기(58.9%)보다 낮은 52.5%의 진도율을 기록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53.2%로 6,024개소 중 3,207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204개소 중 64개소가 타결되어 31.4%의 진도율을 기록

〈표 7〉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5년 9월 30일 현재)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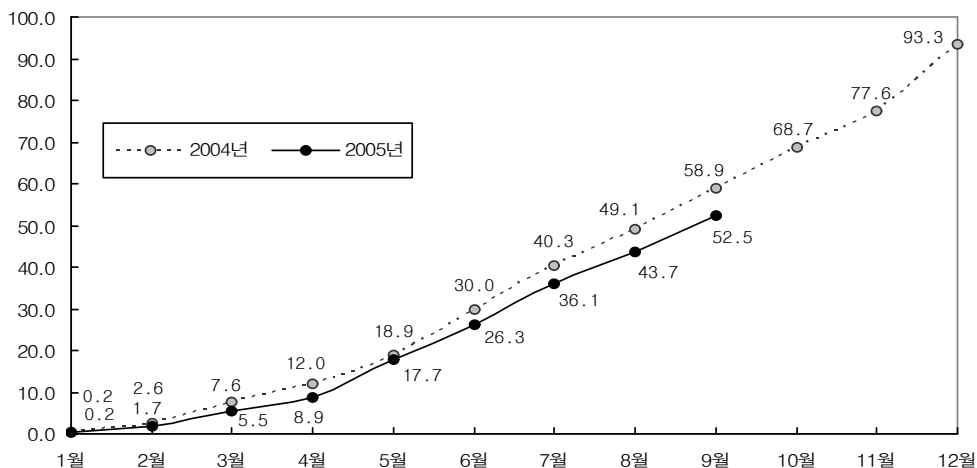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6,228 (5,909)	3,271 (3,481)	52.5 (58.9)	4.9 (5.5)
민간부문	6,024 (5,727)	3,207 (3,416)	53.2 (59.6)	4.9 (5.6)
공공부문	204 (182)	64 (65)	31.4 (35.7)	4.2 (2.6)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9〉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4, 2005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